

# 만남



교회표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출애굽기 3:5, 10)



표지

가을의 깊은 색이 물든 낙엽 속에서 한 해의 결실을 돌아봅니다. 떨어지는 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깃들어 있듯,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가을의 끝자락에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 실현

5대 본질



11월  
목회력

- |             |  |       |                         |
|-------------|--|-------|-------------------------|
| 01 토        |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2 주일 | • 찬양예배 성찬, 신임교사교육 수료식   |
| 07 금        | • 연합권찰모임, 전도 특별금요기도회                   | 09 주일 | • 환경직기념사업회 시상식, 제직회     |
| 10 월 ~ 15 토 | •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 13 목  | • 수능당일기도회               |
| 14 금        | • 전도 특별금요기도회                           |       |                         |
| 16 주일       | •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총동원전도주일, 새가족환영회 |       |                         |
| 19 수        | • 평생대학 실버스타                            | 21 금  | • 심방준비회                 |
| 23 주일       | • 사회봉사주일                               | 30 주일 | • 대림절 첫째 주일, 교회창립 기념음악회 |

# 만남

2025년 11월호  
통권 619호

## Contents



### 이달의 말씀

02 감사는 롤러코스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김운성

### 특집 I 오늘도 감사합니다

- 05 모든 게 감사... 이 남자가 사는 법 김천경
- 08 감사와 찬양 하경택
- 12 절박한 순간마다 움직이신 성령님 정천우
- 14 '남·숨·특·종'... 감사안경을 씌시다! 이의용
- 16 파키스탄에서 배운 '범사에 감사' 하열매
- 18 성경 배우는 새싹들의 고백 이동부

### 특집 II 기도합니다

- 20 가을, 나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김모세
- 22 영락기도원을 소개합니다 장덕권

### 청년광장 / 다음세대

- 25 존폐위기 딛고... '오직 주님만' 찬양 방원진
- 26 오사카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김희은
- 28 리틀스타... 찬양의 향기 깊은 울림 김천경
- 30 '복음불모지' 일본에 전한 하나님 찬양 김혜린
- 32 입시의 산을 넘어 마지막까지 기도하자 강정식

### 교회창립 80주년 특별기획

- 34 한경직 목사와 이승만 정권 박명수
- 37 지하1층 영락휴게실, 모든 성도의 교제 공간으로 김경석

### 만남 그리고 사람들

- 38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운 미얀마 무료 약국 문성미

### 땅끝까지 이르러

- 40 2025 선교대회 성황리에 마쳐 선교부
- 42 기독교 학교는 '하나님의 선물' 우수호
- 43 "민습니다! 아멘"... 훈련병 930여 명 진중세례 선교부

### 영락 글로벌

- 44 영락에서 드리는 열방의 예배 김영석
- 46 부룬디로 부르신 주님의 뜻 김영균
- 48 주여! 탄자니아를 축복하소서 정재훈

### 영락의 울타리

- 52 고요 속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 조수찬
- 54 영락, '성령의 색'으로 채워지다 최진희

### 교회소식

- 56 예장 통합 제110회 총회, 영락교회에서 개최 외
- 59 영락시어터 11월 상영 영화
- 60 피터르 브뤼헐의 <추수하는 사람들>
- 61 새아기·새가정



## 감사는 롤러코스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김운성 담임목사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24~26)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는 레일 위를 빠르게 달리는 기차형 놀이기구입니다. 17세기에 러시아에서 유행하던 얼음 미끄럼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롤러코스터가 처음 나온 것은 19세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처음 설치되었고, 이름을 ‘청룡열차’라고 불렀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청룡열차’ 하면 롤러코스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세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을 즐기시나요? 아니면 무서워하시나요? 많은 분이 스릴을 즐기기 위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한 상황을 즐기는 이라 해도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꺼릴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마치

롤러코스터에 태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사백삼십 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던 밤에 그들은 감격으로 출애굽했습니다. 백성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병거 육백 승을 앞세워 추격해 오고, 앞에는 망망대해인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백성은 절벽에서 추락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롤러코스터가 급강하할 때의 느낌 아시지요? 아마 그것보다 천 배, 만 배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었을 때, 홍해 저편에 올라선 백



성들은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그들이 부른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롤러코스터가 수평을 유지하고 평온하게 달릴 때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로 접어든 지 불과 사흘 만에 백성들은 다시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물구덩이를 발견했지만, 쓴 독수여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원망은 최고조에 달했고,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는 롤러코스터가 또다시 내리막으로 접어든 때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정하셨고,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다시 수평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롤러코스터에 태우시든 하십니까요?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일을 겪지 않았다면, 대자연까지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 따르면 된다는, 평범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왜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물에 넣게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단물로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이 2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출애굽처럼… 감격·절망 요동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

*철저한 순종이 풍성한 감사 가능케 해  
하나님 명하시는 롤러코스터 기꺼이 타야*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나무를 지정하셨어도 물에 넣지 않았다면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 순종은 쓴 물도 단물로 바꿉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을 때,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순종은 감사의 조건을 가져옵니다. 철저한 순종은 넘치는 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99%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이지만,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을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롤러코스터에 기꺼이 탑승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홍해로 가라 하시다면 가야 합니다. 수르광야로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나무를 물에 넣으라 하시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감사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롤러코스터가 급강하하고 있다면, 조금만 믿음으로 견딤시다. 곧 큰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피곤한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곳은 천국이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감사를 영원히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만남**

##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햇살이 교회 마당에 내려앉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자연스레 '감사'라는 단어 앞에 멈춰 섭니다. 바람에 스치는 낙엽의 작은 몸짓에도 하나님 손길이 묻어 있고, 우리 가녀린 숨결 하나에도 은혜의 선율이 깃들어 있음을 느낍니다.

감사는 눈부신 기쁨 속에서만 솟아나는 꽃이 아닙니다. 때로는 캄캄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맺히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하루 하루는 모두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손길, 믿음을 지켜주는 공동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찬송...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피어난 감사의 고백과 간증, 그리고 교회의 발자취 속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영성을 다시 일깨우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좋은 일은 선물, 힘든 일은 더 기도하란 뜻” 모든 게 감사... 이 남자가 사는 법

### 『감사가 뭉클뭉클』 저자 박세환 집사

모태신앙으로 자라 LG에서 20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4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 박세환 집사.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감사’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 작년 출간한 책 『감사가 뭉클뭉클』에서 일상 속 감사를 담담히 풀어냈던 그를 만나, 신앙과 삶,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재 김천경 기자

#### 건선 앓으며 기도 시작... 하나님 깊이 만나

박 작가는 모태신앙이지만, 학창 시절에는 신앙적으로 깊이 못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앓은 건선으로 인해 매일 기도했다고 한다. 그러다 21살 무렵 증상이 악화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전환점이 되었다.

“낮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기에 가장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대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길을 걷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이후 기도와 성경 읽기는 그의 생활 루틴이 되었다. 직장인이 된 후에는 미팅, 발표, 업체 통화 전마다 기도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편 18:1) 말씀을 암송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박 작가는 사춘기에 접어든 첫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새삼 느꼈다. 그 마음을 담아 카카오 ‘브런치’에 글을 한 편씩 써 내려갔고, 그렇게 모인 이야기들이 『감사가 몽클몽클』이라는 책으로 완성되었다.

이 책은 평범한 일상 속 감사의 시선을 이야기한다. 귀엽고 순수했던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책은 A4 한 장 분량의 짧은 동화들로 구성되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읽으며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아쉽고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어렸을 적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음 깊은 곳에 위로와 평안을 얻었으면 했죠.”

박 작가 또한 가끔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면, 이 책을 펼쳐보며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일깨운다고 한다.

박 작가 가족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한 명씩 그 날 감사했던 일들을 나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색

해했지만, 지금은 감사한 일들을 술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 가면서 아이들도 무슨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키워 가고 있다.

박 작가는 감사의 기준을 낮추고, 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일상 속 모든 것이 감사해진다고 말한다.

그에게 감사의 비결을 묻자, 박 작가는 담담하게 답했다.

“모든 게 감사하죠,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딸아이를 봐도 감사해요. 좋은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힘든 일은 더 기도하라는 뜻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어 박 작가는 “한 가족이 오순도순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책이 그런 작은 감사들을 발견하는 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바람도 전했다.

박 작가는 『은혜랑 회사 다니기』 『나는 지식보다 지혜가 좋다』 『진리』 『감사가 몽클몽클』 등 4권의 책을 썼다. 그에게 글쓰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쁨의 도구다.

“처음 글을 쓸 땐 머리보다 손이 먼저 나갔어요. 생각보다 더 솔직하게 써지더라고요. 아이들을 재운 밤에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도 됐죠. 무엇보다 글이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 봉사와 적정기술 사역까지, 직장 신우회의 힘

LG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온 그는 직장 안에서도 신앙



“

저와 함께 ‘브런치’해요

일상 속 뭉클뭉클 감사 담아  
하나님께 러브레터 보냅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눈 생기고  
하나님 사랑 나누는 통로죠



”

공동체를 이어가며, 매주 목요일 아침엔 기도 모임, 점심엔 신우회 예배에 참여한다. 신우회 멤버들과 함께 여명학교(탈북 청소년들과 교제), 생명을 주는나무(청소년 대상 직무 강의) 등의 사역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친환경 적정 기술 연구회’의 일원으로, 마다가스카르 의료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포함해, 국내외 취약 지역에 기술을 보급하고 컨설팅하는 사역도 진행 중이다.

“‘적정기술’은 단순한 기술 전달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가진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죠”

### 신우회와 글쓰기? 시작이 반입니다

그는 카카오의 콘텐츠 플랫폼 ‘브런치’에 ‘그분과 함께’라는 이름으로 글을 연재 중이다. 소소한 일상 속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글은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다.

“하나님께 쓰는 러브레터라고 생각해요. 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통로죠”

박 작가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신우회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회사 안에 신우회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야기했다. 한 두 명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며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권면했다.

또한, 작가로서 글쓰기에 관심 있는 이에게는 먼저 용기 내어 시작해 보길 당부했다. 글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되고, 그 글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전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5:16~18)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만남**

## 감사와 찬양

### 시편 신학의 관점에서 본 감사



11월은 감사의 달이다. 추수감사절이 있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달이다. 그러면 ‘감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성경에서 ‘감사’의 의미와 방법을 깊이 알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시편을 살펴보아야 한다.

시편의 제5권을 시작하는 시편 107편 1절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감사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호두’(WdAh)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야다’(hdy)라는 동사의 히필(hif.) 명령형이다. 그런데 ‘야다’라는 동사는 ‘찬양하다’(praise)와 ‘감사하다’(give thanks)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107

편 1절의 시작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실제로 독일 엘버펠더(Elberfelder) 번역 성경은 “Preist den HERRN”(주님을 찬양하라)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야다’ 동사가 ‘감사’와 ‘찬양’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감사’와 ‘찬양’의 관계는 무엇이며, ‘감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시편 장르 분석: 감사는 탄원과 찬양 사이에서

시편을 연구할 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장르분석이다. 장르분석의 길을 넓게 연 사람이 독일의 구약학자 헤르만 궁켈(H. Gunkel)이다. 그는 시편이 사용한 언어, 본문의 구조, 그리고 생생 배경(삶의 자리) 등의 요소를 따라서 시편을 분류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분류법에 따르면 시편에는 세 가지 주요 장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탄원(lament)시와 찬양(praise)시와 감사(thanksgiving)시이다.

이 세 가지 시편 유형들은 서로 친소(親疏) 관계가



하경택 교수  
장신대 구약학

있다. 탄원시와 찬양시가 양극단을 이룬다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감사시이다. 감사시는 탄원시의 요소도 지니고 있고, 찬양시의 요소도 지니고 있다.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묘사한다는 점에서는 탄원시와 일치한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경험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회고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음에도 감사시와 좀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시편 유형은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다. 감사시와 찬양시가 사용하는 어휘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두 유형 모두 감사나 찬양의 이유를 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 찬양시와 감사시의 구분: '기도 응답'의 유무

그렇다면 두 유형의 차이는 무엇이며 감사시와 찬양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감사와 찬양의 이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찬양시를 보자. 찬양시에 나타난 찬양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뉜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 행동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관한 내용이다. 전자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며, 창조주로서 어떻게 세상에 관여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찬양시이다. 이러한 시편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분의 성실과 공의를 찬양하며(시편 103편, 117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시편 8편, 104편). 후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찬양시이다. 이때 출애굽의 역사를 증언하는 내용으로서 열 가지 재앙, 홍해 도하, 광야 유랑, 가나안 땅 정복 등의 내용이 찬양의 이유로 등장한다(시편 114편, 135~136편).

이러한 찬양시와는 달리 감사시가 지니고 있는 특징

이 있다. 그것은 감사시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증언'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청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있을 때 감사시라고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시편 30:2)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시편 118:5)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시편 138:3)처럼 감사시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감사의 이유로 분명하게 등장한다.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이 감사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사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시편이 서두에서 언급한 107편이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네 가지 종류(광야에서 길 잃어버림, 옥에 갇힘, 죄와 질병, 바다에서의 위험)의 근본적인 곤경이 묘사되고,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 찬양과 감사의 지평 확대: 예배와 생활 속으로

##### - 찬양이 곧 감사, 감사가 곧 찬양

여기에서 다시 '야다' 동사가 '찬양'과 '감사'를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는 처음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찬양이 곧 감사이고, 감사가 곧 찬양이다'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을 장르분석에 적용하면 찬양시와 감사시를 하나의 장르로 분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분류를 실행한 학자가 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C. Westermann)은 감사시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찬양시와 감사시에 해당하는 모든 시

편을 찬양시라는 큰 틀 안에 묶고, 찬양시를 ‘서술적(descriptive) 찬양시’, 감사시를 ‘서사적(narrative) 찬양시’라고 불렀다.

이제 이러한 고찰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시편 분석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찬양이 곧 감사이며, 감사가 곧 찬양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평소 찬양과 감사를 전혀 다른 부류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찬양은 찬양대가 하는 것이고, 감사는 감사절에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찬양은 예배 전이나 중에 부르는 노래이고, 감사는 예배 중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평소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다. 찬양은 예배 전이나 중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행동이 찬양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감사는 헌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시편 69:30~31; 또한 50:23). 이렇게 되면 찬양과 감사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넓게 열리고, 더욱 의미 있는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찬양이 곧 감사이며, 감사가 곧 찬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둘째로, 감사의 이유와 내용을 찬양시와 감사시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아보라 하면 그것을 나 개인의 경험에서 찾기가 쉽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한 해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감사의 이유를 말하게 된다. 하지만 찬양시와 감

사시에 나타난 찬양과 감사의 동기(motive)들을 생각하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의 눈이 크게 열릴 수 있다.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매우 넓고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찬양시와 감사시를 구분하지 않고, 찬양과 감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감사의 이유이다*. “여호와와 그의 공훈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다(시편 103:8).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크시고, “여호와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하시다(시편 117:2). 수많은 시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라고 외치고 있다(시편 106:1; 107:1; 118:1, 29; 136:1 등).

다음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감사의 이유다*. 시인들은 창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시편 8:1, 9).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세계에서 권능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다. 또한 하늘과 궁창이, 날과 밤이,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리는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시편 19:1~6). 이 모든 찬양의 내용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시편 29편; 33편; 104편).

또한,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감사의 이유다*. 출애굽(exodus)은 열 가지 재앙을 시작으로 홍해 도하부터 요단강 도하를 거쳐 가나안 땅 정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표준적인 구원사’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찬양하는 시편





에는 이러한 표준적인 역사가 중심을 이루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한다(시편 78편; 105~106편; 114편; 135편).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이 우리의 표준적인 구원사이다. 이 구원역사의 의미가 성만찬에 담겨있다. 성만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다(고린도전서 5:7). 우리의 감사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표준적인 구원 사건’에 대한 감격에서 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구원경험이 감사의 이유다.** 한 해를 돌아보며, 아니 그 이전부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이유이다. 시인들은 감사사에서 다양한 기도 응답의 경험을 고백한다(시편 30:2; 118:5; 138:3). 우리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에 감사할 수 있다.

#### 감사가 어려운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의 근거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에게 앞에서 열거한 감사의 이유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다.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와 ‘표준적인’ 구원역사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러한 감사의 이유들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 설령 지금 당장은 이러한 이유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경험한 증인들에 잇대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히브리서 12:1)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아니 진정한 ‘찬양’이, 아니 진정한 ‘감사-찬양’이 가득하길 소망한다. **만남**

## 절박한 순간마다 움직이신 성령님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질곡과 희망 둘 사이를 오가며 살아간다 싶었는데, 도둑처럼 은퇴할 때가 되어가니 준비하라는 경고가 들려온다.

썩쓸함이 찾아온다. 사람 역할 다하지 못한 까닭이다. 장로 임직 때 본당 강대상에 서서 “맡겨진 시대적 소명 다하겠다” 교인들에게 말씀드렸건만, 시대 변화에 따른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이다.

과거 어떤 경험으로 인해 필자는 길을 걸을 때도 곧잘 기도에 몰입하곤 한다. 기도에 잠기면 나도 모르게 발끝을 바라본다. 시야에 거치는 것 없게 하려고 그리 되는 것이다.

### 기도의 발끝에서 들린 음성… 아프리카 우물을 파다

2010년 말 제2남선교회 회장에 선출된 필자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야 했다. 선교 접촉점인 우물 하나 파는데 미화 일만 달러가 필요했다. 이를 포함해 차기 선교



제2남선교회가 파준 아프리카 케냐 우물

사역을 위해 임기 시작 전인 12월 한 달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듬해 1월 2일 첫 주일, 특별히 우물 비용을 위해 기도해 깊이 잠겨 발끝을 바라보며 교회 정문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갑자기 코앞에서 여인의 음성이 들렸다.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세요’ 그분은 선교부 부장과 대화 중이었다. 당시 아프리카 우물은 공식화되지 않은 나 혼자만의 기도 주제였다. 후에 그분 배정숙 권사님으로부터 일천만 원을 받게 되고 추가 모금이 진행되어 영락교회 최초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다. 케냐에 하나, 남수단에 하나, 잠비아에 두 개.

### 중국 선전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갈보리찬양대는 2015년 초 중국 공연을 결정했다. 찬양대 대장이었던 필자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출국 전, 베다니홀에서 미리 선보인 공연 순서 인사말에 다음 소원과 목표를 썼다. ‘첫째, 중국인들이 찬양에 감동하길 바란다. 둘째, 과거에 예수를 믿었으나 현재 안 믿는 이가 있으면 다시 믿게 되길 바란다. 셋째,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았던 이가 예수를 믿게 되길 바란다’였



정천우 장로  
강남교구  
학교법인 보성학원 이사장



2015년 갈보리찬양대의 중국 공연에서 나온 결신자들

다. 선전(深圳)에서의 마지막 공연은 앞선 공연들처럼 역시 감동스러웠다. 무대 위에 오르신 중국인 목사님이 말했다. “과거 예수를 믿었지만, 현재 안 믿는 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7~8명이 나왔다. 이어 그는 말했다. “그동안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세상에! 한국 출발 전의 소원이, 목표가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다니... 박신화 지휘자가 앞에서 세어 보니 모두 87명이라고 했다. 무대 위 대원 모두의 몸엔 전율이 흐르고 있었다.

### “아무 염려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부친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힘들 때 필자는 영락교회가 재건한 학교법인 보성학원의 이사장을 맡았다. 2015년 말 교육청에서, ‘차년도에 보성여자고등학교 학급 수를 하나 줄인다’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왔다. 흥흥한 소문까지 돌았다. 필자는 하염없이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조차 하기 힘들었다. ‘하나님!’ 하고 찾는 그 외침 한 마디를 기도로 받아 달라고, 몇 달을 끝없이 하나님을 찾았다. 어느 주말, ‘부친 장례를 준비하라’는 의사의 연

락을 받았다. 주일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들려왔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눈물이 하염없이 뺨을 적셨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부친을 찾았다.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부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 왔어요! 장남 왔어요! 저 아시죠?” 몇 초 후 부친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다. 부친은 5년 가까이 더 사시다 가셨다. 부친이 살아나시자 바로 학교가 떠올랐다. ‘아, 학교는 어떻게 됐지?’ 다행히 학급 수가 줄지 않았다. 신학년 신학기에 학급 수가 줄지 않는 것으로 공문이 다시 왔다고 했다.

###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아는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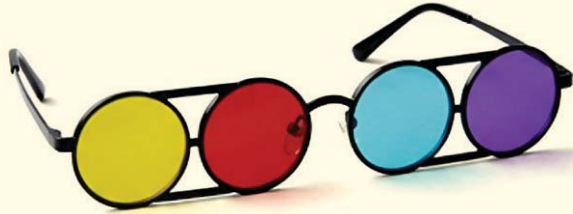
위 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 결정적 순간에 성령이 움직이셨다는 점이다. 우물 관련 음성을 들은 일, 다시 혹은 처음 예수 믿을 이는 앞으로 나오라 한 일, 부친 생명과 학교 학급 수가 복원된 일이 그 증거다.

글을 쓰다 문득 성경을 보니 고린도전서 4장 9절이 눈에 들어온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사도 바울의 절박함은 혹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동물의 밤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상대가 되기도 하는, **끄트머리**에 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은퇴에 앞서 다시 한번 주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왔음에 감사한다. 좋은 때나 절박한 때나,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여전히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길 진정 소원한다. **만남**

‘남·숨·특·중’...

감사안경을 씌시다!



아내의 생일에 나이만큼 감사한 일을 카드에 적어 선물하기로 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그걸 적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다. 아내도 감동했다. 나이 더 들기 전에 꼭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본다. 우리는 “감사하라”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 않다. 감사 거리가 잘 안 보여서이다. 감사 생활을 잘하려면 감사 알기(知), 감사 찾기(索), 감사 기억하기(記), 감사 표현하기(表), 감사 갚기(報), 감사 배풀기(配)를 단계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이 중 제일 어려운 게 감사 찾기다. 감사 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남·숨·특·중’이라는 감사안경을 소개한다. ‘남은 걸 보자!’ ‘숨어있는 걸 보자!’ ‘특별하게 보자!’ ‘좋은 걸 보자!’라는 안경이다.

#### 첫째 안경은, ‘남은 걸 보자!’

올림픽 시상대에 선 선수들의 표정을 연구한 결과가



이의용 은퇴장로  
일산충신교회  
전 국민대 교수, 감사학교 교장  
영락 금요직장인예배 찬양대 지휘자(45년째)

있다. 금메달 수상자의 표정은 당연히 밝다. 그런데 동메달 수상자는 표정은 밝은데, 은메달 수상자의 표정은 어둡다. 동메달 선수는 ‘남은 메달’을 생각했지만, 은메달 선수는 ‘놓친 메달’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음성꽃동네 입구 바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언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에나 쓰는 말이라 한다. 사업이 망한 사람에게도,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남은 시간이 있다. 우리가 잃었다고,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 뒤에도 남은 것이 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감사안경을 쓰고 남은 걸 보자. 우리 뒤에는 주님이 남아 계시지 않은가?

#### 둘째 안경은, ‘숨어 있는 걸 보자!’

빙산은 90%가 물에 잠겨 있다. 겉으로 보이는 10%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건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뒤에 숨어 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종으로 팔리고,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갔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대홍년 때 가족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아 봐야 한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 쓰라는 문제가 나왔다. 아이는 피라미드 등 인류의 놀라운 유적 이름 대신, ‘숨을 쉬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등 일곱 가지를 적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숨어 있는지를 손경민의 ‘은혜’, 송명희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사가 잘 설명해준다.

### 셋째 안경은, ‘특별하게 보자!’

동전의 모양은 동그랗게 보이기도 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타원이나 직선으로도 보인다.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보면 전혀 다르다. 1968년 성탄절 이브, 아폴로 8호가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돌았다. 세 명의 우주인은 우주에서 성경 창세기 1장을 낭독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시 우주를 다녀온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나는 우주에 올라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나만의 특별한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 우리는 검은 건 글자이고 흰 것은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검은 글자가 아니라, ‘흰 배경’으로도 말씀하신다. 특별한 건 특별하게 봐야 보인다. 감사도 그렇다.

### 넷째 안경은, ‘좋은 걸 보자!’

로키산맥을 올라가는 관광열차가 중간에서 고장 나 열차가 서버렸다. 안내 방송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엔진이 고장 났습니다. 다행히 비상용 엔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다행스러워했다. 그런데 올라가던 열차가 다시 멈췄다. 다시 안내 방송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비상 엔진도 고장 나버렸네요. 걸어서 올

무엇이 보입니까?

# 이러게

라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승객들은 불평하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다시 방송이 나왔다. “여러분,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온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입니다. 만약 비행기였다면 우리는 모두 추락했을 겁니다” 감사는 긍정의 눈을 통해 보인다

긍정적 사고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가나안 정탐에 나선 이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봤다. 소년 다윗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나, 다른 사람, 일, 상황,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긍정의 안경으로 세상을 봐야 감사 거리들이 보인다.

우리는 지금 불평불만이 창궐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남·숨·특·좋’의 감사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보자. **만남**



## 어린 다섯 아들 동역자와 함께 파키스탄에서 배운 ‘범사에 감사’



### 모교회 영락에서 키운 선교사의 소명

살람(Salam)! 평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월간 『만남』을 통하여 영락의 성도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락교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한 저의 모교회입니다. 저는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조부모님부터 다니셨던 영락교회를 모태 신앙으로 다니고,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 쪽 영락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왔습니다.

중등부 때 찬양팀을 섬기며 함께 참여했던 경배와 찬양 전국 청소년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자연스럽게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후 방황의 시기도 있었지만, 대학생 때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선교단체를 통해 훈련받고 같은 비전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 후 파키스탄으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 극한 상황에서 깨달은 ‘동역자’ 자녀

파키스탄은 더울 때는 물과 전기가 자주 끊기고, 추울 때는 가스가 종종 끊깁니다. 저는 첫째와 둘째를 현장에서 출산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지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육아로 인해 경

건 생활도 많이 무너지고, 자유롭게 영혼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어려워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며 지내던 중, 남편이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전도 여행을 갔는데,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살 된 첫째와 백일 된 둘째를 데리고 남편이 갇힌 도시로 이동하여, 현지 그리스도인 가정에 머물며 아이들과 함께 아빠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함께 올린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위로와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남편도 일주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동역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버겁고 힘들기만 한 것 같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어린 입술을 통해 이루시는 영적 전쟁과 구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시편 8:2)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그 땅의 어두움들을 다 파할 것만 같은

강력한 찬양이 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현지 영혼들도 자녀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되고, 현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놀며 친구가 됩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첫째가 바이킹을 타고 싶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태워 준 적이 있었습니다(아래 사진). 그때 옆자리에 앉았던 현지 자매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북부 산간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 자매였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이셨습니다. 자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함께 예배 모임에도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놀고 싶은 마음까지도 받으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 ‘다섯 동역자’와 한국에서 드리는 감사의 삶

지금 우리 가정에는 다섯 아들(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5살, 2살)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단체에서 본부를 섬기고 있어 한국에서 지내는 중인데, 다섯 아들과 함께 날마다 스펙터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도, 전기도 끊기지 않고 모든 것이 풍



바이킹 탄 자매들.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족하여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뽐뽐하게 틀고 시원하게 지낼 수도 있고,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점심 식사까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챙겨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오히려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전기가 끊겼다가 다시 들어오기만 해도 감사하며 살았는데 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투닥거리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귀한 다섯 명의 어린 동역자와 함께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주신 영락교회에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결실의 계절, 주님께 드리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각 가정과 교회와 열방에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하열매 성도 \_ 동대문·종량교구  
파키스탄 선교사MMI(Maranatha  
Mission International) 선교회 소속

#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 성경 배우는 새싹들의 고백

‘바이블 인 더 스토리’ 주말반 초등생들의 감사 이유



초등2부 안우영

여름성경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축구 하다 다리를 다쳤는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 할머니 덕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2부 이선율

초등부 찬양대를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리틀스타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초등2부 이시현

‘바이블 인 더 스토리’를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초등1부 이우진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1부 주미니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이블 인 더 스토리’에서 구약을 아주 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2부 황예성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1부 구은우

좋은 엄마, 아빠, 오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2부 오유빈

하나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과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1부 이서진

가족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년2부 이남우

토요일에도 교회 갈 수 있어서 감  
사하고,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  
어서 감사합니다.

소년2부 이다솔

열 재앙과 십계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해요.

소년1부 김주형

'바이블 인 더 스토리' 신청을 늦게 했  
는데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2부 석예빈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2부 박예원

성경 말씀을 배울 기회 주셔서 하나님  
의 사랑을 더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경으로 만든 게임을 친구들  
과 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년2부 이선아

친구들과 '바이블 인 더 스토리'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  
고, 감사합니다!



## 가을, 나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 가을의 기도, 어깨에 힘부터 빼고 시작

가을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이 가을을 표현하기 좋아 시의 한 대목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후략)

이 시처럼 기도하기 정말 좋은 날씨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듯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루에 보통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쁜 날에도 하루 최소 세 시간은 꾸준히 기도했다고 여러 전기와 기록에 전해집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이토록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너무 거창한 ‘종교 행위’나 무거운 ‘의무’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글을 통해 기도의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다시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고자 합니다.

### 기도란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 영혼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형식에 얽매이거나 특별한 동기가 생길 때만 기도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는 매우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오직 ‘응답’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유가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듯, 기도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만남의 시간’ 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바로 그 순간, 살아있는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응답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어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김모세 목사  
영락기도원

###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내면의 변화'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마음이, 기도할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조급했던 마음에 인내를 배우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싹트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그 상황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A의 방향이 가로막힐 때, 기도를 통해 더 좋은 B라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응답 받았음'을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 매일 5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소중한 만남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하루 5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바쁜 사역 중에도 따로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알람을 맞춰 두고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거창한 기도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쌓여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추억이 되고, 영혼의 든든한 뼈대를 세워줄 것입니다.

둘째, 나의 '감정'을 기도에 녹여 내십시오. 우리는 기쁨이나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 슬픔, 불안, 실망감까지도 모두 듣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하고, 억울한 마음을 숨김없이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감정까지도 기도의 자리로 가져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을이 깊어 갑니다. 화려했던 잎들을 내려놓는 나무처럼, 우리의 조급한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허한 모국어로 하나님 앞에 서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부어 주시는 평안과 지혜, 그리고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남**





## 서울 품은 천혜의 기도처, 영락기도원을 소개합니다

### 한경직 목사님의 뜻으로 시작된 기도원

우리 영락교회의 귀중한 자산이자 자랑거리인 영락기도원(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55길 168-6)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그리고 신앙훈련과 더불어 “기도로 주님과과의 체험적 단련을 하자” 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뜻에 따라 1958년 기도원 용지를 기증받아 1960년 소예배실 신축을 시작으로 1961년 10월 9일 봉헌, 2001년 7월 증·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락기도원은 서울 시내에 있는 몇 안 되는 기도원 중 하나로,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천혜의 자연환경 그대로의 풍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덕권 장로  
노원교구  
영락기도원장

### 만 평 넘는 대지… 영락문부터 야외 기도처까지

우리 기도원의 전체 부지는 33,332㎡, 평수로는 10,136평에 이르는 넓은 대지 위에 다양한 예배와 숙소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에 있는 운동장을 중심으로 네 곳(베네스다, 베다니, 야곱, 팔복)의 야외 기도처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 영락문

정문인 영락문은 성곽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성곽 위 중앙에는 ‘영락문’이, 양쪽에는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 1)

#### ▷ 금박부조벽화와 돌비

정문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아말렉 전쟁 장면을 묘사한 금박부조벽화가 있고, 그 아래에는 “五천만을 그리스도에





1



2



3

게로"라는 한경직 목사님의 친필 문구가 새겨진 돌비가 있습니다. '五천만' 중 '五'자만 한자로 표기하신 뜻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문을 지나면 만나는 돌비에는 '형제는 왜 이 산에 오르십니까?'라는 질문이 새겨져 있어 많은 생각을 하며 산을 오르게 합니다. **(사진 2)**

#### ▷ 시설 및 기도처

비탈진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면 왼쪽으로는 식당이 있는 '믿음관'과 '소망관'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기도원 사무실과 예배와 숙소 공간인 '사랑관'이 있으며, 사랑관 아래로 '베다니 기도처(야외)'가 있습니다. 사랑관 바로 위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작은 연못과 함께 '베네스다 기도처(야외)'가 있습니다.

#### ▷ 목사관과 야외 기도처

더 올라가면 왼쪽 위로 교역자 숙소인 '목사관'이 보이며, 소망관과 목사관 사이에는 '팔복 기도처(야외)'가 있습니다. 또 목사관 앞에는 돌로 만든 강대상과 돌의자들이 마련된 '야곱 기도처(야외)'를 만나게 됩니다. **(사진 3)**

#### ▷ 본당

조금 더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야외 행사를 하는 운동장 겸 주차장이 있고, 그 위로 '세미나동'이 멋진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정면에서 위쪽을 보면 넓고 긴 계단이 펼쳐지고, 그 계단을 오르면 본당이 나옵니다. 이곳이 기도원 예배가 열리는 예배당입니다. **(22쪽 사진)**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완만한 돌레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예배 및 대관 안내

이 아름다운 자연과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배와 모임이 진행됩니다.

- 봄·가을: 교구별 '친교의 날' 행사
- 여름: 교육부 내 교회학교 수련회
- '산상기도회' 등 특별 집회

- 본당: 약 500명 수용 가능
- 목사관: 교역자 숙소
- 세미나동: 약 80명 수용 가능
- 사랑관: 약 175명 수용 가능
- 소망관: 약 100명 수용 가능
- 믿음관: 약 160명 수용 가능

## 예배 및 개방 일정

### ▷ 정기 예배

- 기간: 2월~6월, 9월~12월
- 시간: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6:30  
오전예배: 화~금 오전 10:30~12:30  
철야기도회: 금요일 밤 11:00~토요일 새벽 4:00

### ▷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 개방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여 개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 기간: 정기 예배 기간과 동일(2~6월, 9~12월)
- 시간: 월~토 새벽 5:00~오후 11:00
- 장소: 본당 및 야외 기도처

## 대중교통 이용과 역사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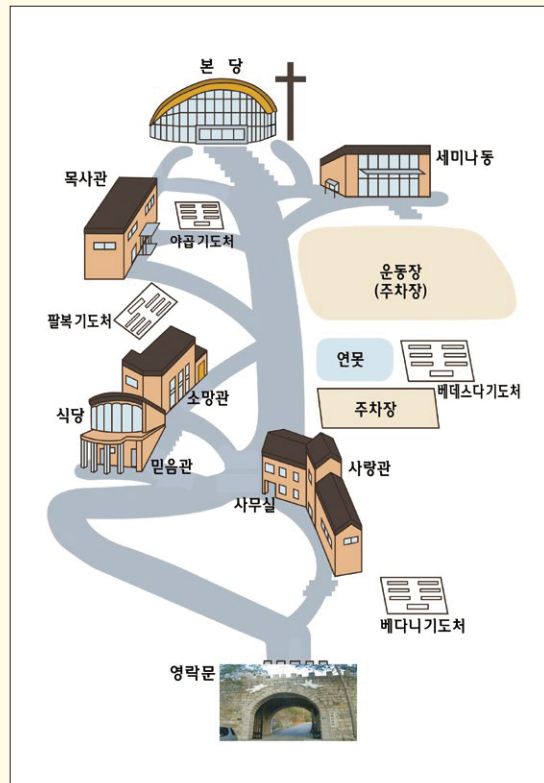
영락교회 기도원에 오실 때는 승용차나 기도원 버스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신선한 공기를 온전히 누리는 특별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편도 편리합니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앞에서 2번 마을버스를 타시고 종점에서 하차하셔서 가르멜수녀원 담길을 끼고 기도원까지 도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계곡과 사계절 다양한 꽃, 풍성한 나무가 어우러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정문인 영락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한경직 목사님의 민족 사랑과, 곳곳에 자리한 영락기도원의 역사, 기도

원의 작은 이야기들이 묻어 있는 부조벽화, 여러 돌비, 풍경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도원에 자주 올라오시길 권면드립니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소중한 대화를 나누시고, 마음에 담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만남**

## 영락기도원 안내도





## 존폐위기 딛고... '오직 주님만' 찬양

### SMC찬양대, 6년만에 베다니홀서 음악회

대학부찬양대 SMC(이하 SMC찬양대)의 찬양음악회가 '오직 주님만'이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원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위해 각자의 고민과 사람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더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찬양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SMC찬양대는 대학부 대원들이 학업과 진로 준비를 병행하면서 삶의 한 부분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번 음악회의 모습과는 달리 코로나를 직면했던 SMC찬양대는 다른 찬양대들과 마찬가지로 몇 년간 존폐 위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방원진 성도  
대학부찬양대 SMC 총무

그렇기에 이번 찬양음악회가 뜻깊었던 것은 다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주셨다는 점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6년 만에 베다니홀에서 음악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 나눔과 겸손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함께 SMC찬양대를 위해 기도해주신 분들, 신앙의 선배님들, 지도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찬양대의 응원과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사랑을 저희만 누리지 않고 흘려보내며 하나님 찬양에 더 힘쓰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만큼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년 50주년을 앞둔 SMC찬양대는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더 높이기 위해 낮아지고, 겸손히 순종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물음표에서 믿음의 느낌표로



## 오사카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 일본을 향한 물음표, 사랑의 편지를 준비하다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하고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저는 일본을 떠올릴 때마다 '물음표'가 많았습니다. 언제나 예의 바르고 성실하지만, 속내를 알 수 없어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작년 8월, 청년회 예배에 방문한 일본 청년들이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 일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던 모습이 마음에 깊이 남아, 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감동으로 해외선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하기선교를 다녀온 직후 해외선교팀의 회계로 섬기며 준비하게 된 이번 선교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주제 말씀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일본으로 간다는 의미로 팀명을 '러브레터(Love Letter)'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일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

길 원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전해졌음에도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알고자, 일본의 역사와 문화, 사회, 종교적 배경을 조별로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은 일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사영리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직접 작성한 전도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주제 말씀이 담긴 책갈피와 전도팔찌, 캘린더를 정성껏 편지봉투에 담아 받는 이들이 복음을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했습니다.

### 십자가 복음이 낯선 땅, 일본을 마주하다

그러나 출국 직전까지 사역 계획은 여러 번 바뀌었고,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품은 채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 선교사님은 "이곳에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절대자를 신뢰하고는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일본은 그만큼 느리지만 확실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문득 한국어 수업 중 한 일본 학생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요?"라고 물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복음이 이 일본 땅에 얼마나 낯선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희은 집사  
청년회 부회계  
광야소리





1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 준비한 조별 발표 시간 2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한 문화의날 활동 - 달고나 만들기 3 청년회에서 준비한 러브레터 굿즈 4 블레싱처치의 주일예배 말씀, 놀랍게도 이번 청년회 해외선교 주제말씀과 동일했다.

고베 지진센터에서 본 대지진 영상은 일본 사회 깊숙이 자리한 공허함과 외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문장은 “인간은 위대하다”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허무가 느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 앞에서, 미래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데 집중하며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당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에서 간절히 무언가를 비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보며, ‘저 간절함이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면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 내려놓음의 순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현지 교회에서 온 삶을 다해 섬기고 계신 일본인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느린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 후 우리는 모든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매일 바뀌는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모두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팀원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실체가 되었습니다. 일본어로 듣게 된 주일예배, 현지 교회 일본 청년들과의 교제, YWAM 센터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한 노방전도 등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고, 일본으로 부르신 이유를 각자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선교의 과정을 지나며 저는 진정한 ‘내려놓음’을 배웠습니다. 늘 계획하고 움직이던 제게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내가 일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시어 한국에서 만나게 하신 일본 학생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물음표로 시작해 믿음의 느낌표로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사가 해외선교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남**



## 제12회 영락교회 아동부 연합 찬양제 '리틀스타' 찬양의 향기 깊은 울림

지난 10월 19일(주일) 오후 5시, 베다니홀을 가득 채운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제12회 영락교회 아동부 연합 찬양제 '리틀스타'가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찬양대가 한음 한음 정성껏 쌓아 올린 화음은 깊은 울림을 전했고, 소년부 앙상블의 맑은 선율이 감동을 더했습니다.

각 찬양대가 올려 드린 찬양과 연합 찬양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여운을 남기며,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취재 김천경 기자







## 어린이 찬양 작사 공모전 안내

‘리틀스타’ 찬양제의 감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찬양으로 이어가고자, 어린이 찬양 작사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쓴 찬양 가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며, 순수한 믿음과 기쁨이 담긴 작품을 기다립니다

**기간:** 2025년 10월 19일 ~ 11월 30일

**대상:**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

**제출:**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제출

**시상:** 선정된 작품은 실제 찬양곡으로 제작되어 예배에서 불려지며, 소정의 상품이 수여됩니다. 많은 어린이의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복음불모지’ 일본에 전한 하나님 찬양

### 중등부찬양대, 열도 향한 사명의 여정

우리 중등부 여호수아찬양대는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 동안, 찬양대 학생 54명과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까지 총 70명이 함께 일본 나고야와 오사카로 비전트립과 순회연주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을 따라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갈 수 있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일정에 긴장도 있었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수개월 전부터 매주 토요일과 주일 중등부 예배를 마친 후 찬양 연습과 기도 시간을 가지며 준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드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기독교인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전하는 찬양과 기도가 그 땅에 얼마나 귀하게 쓰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책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 양코르 요청 들으며 하나님 동행 확신

일본에 도착한 첫날, 몸은 피곤했고 낯선 환경에 긴장도 되었지만, '하나님 사랑을 전하러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나고야 순복음교회에서 리허설 후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하는 동안 피곤했던 몸이 회복되는 것 같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다음 날 찬양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나고야 순복음교회와 재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 교회에서 찬양을 드린 후, 저녁에는 엔젤광장에 모여 일본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 목사님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묵상하고 기도한 것이 이번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사카 북부교회 100주년기념음악회에서 찬양했던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찬양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양코르가 나왔을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지 목사님께서는 "이런 찬양대 친구들이 일본에 한두 명만 있어도 일본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텐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비전트립 마지막 날, 오사카 블레싱처치에서 일본 성도들과 함께 드린 예배에서는 많은 성도분이 은혜받았다고 말

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찬양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의미로 화관을 씌워 주시며, "오늘의 찬양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들었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 믿음 한뼘 더 성장... 열도에 복음 더 전해지길

처음에는 걱정도 많고 긴장도 되었지만, 찬양 후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번 시간을 되돌아보니, 감사한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비전트립 동안 힘들고 피곤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모든 시간이 은혜로웠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제 믿음이 한 걸음 더 자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경험은 앞으로의 신앙생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번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본 땅에 역사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김혜린 학생  
중등부찬양대



## 어차피 넘어야 할 '입시의 산'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 신앙과 입시 사이, 흔들리는 마음

고등부 교사로서 한때 입시를 겪은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해 격려의 글을 전하고자 한다.

'입시제도를 없앨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점점 커지는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특히 고3이 되면 학원 수업 때문에 주일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다.



강정식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고등부 3학년 대표교사



### 변화하는 시대, 생계형에서 달란트의 시대로

우리 선조들을 되돌아보면 삼국시대 태학과 오경박사, 화랑도, 고려시대의 국자감, 조선의 성균관과 과거제도 등을 통해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다. 현재의 대학입시도 그와 같은 '우리 삶에서 꼭 넘어야 하는 산'인 것 같다.

우리 세대 입시는 '생계형'에 가까웠다. 대학에 가야 직장을 얻을 수 있었고, 판·검사, 의사와 같은 직업은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입시에 전력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우리나라 위상은 OECD 회원국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기본적 생활은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니 지금의 시대는 대학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신의 목표와 적성을 충분히 고민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

각한다.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생들이 판검사, 의사 같은 직업을 로망으로 삼으며,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자기 적성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입시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

### 부모의 믿음이 길이 되는 때...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하라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자녀가 어떤 달란트를 가졌는지 관찰하며,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함께 목표를 설정한다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아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젊은 IT 관련 창업자, K팝을 이끄는 청년 엔터테인먼트 CEO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대학에 가기 위해 지식만 쌓는 사

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에서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학부모님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이 이 자리에 동참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아!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해 왔고, 참으로 수고 많았다.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고, 수시 면접 등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수고했고, 마지막까지 힘내고 함께 기도하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시편 37:4~5) **만남***

#### ▶ 청소년 부모&교사 기도회

- 대상: 중·고등학생 부모, 교사
- 매달 첫 목요일 19시
  - 11월 6일(목) 19시 50주년기념관 4층
  - 12월 4일(목) 19시 50주년기념관 B2 드림홀

#### ▶ 수능 당일기도회

- 11월 13일(목) 50주년기념관 B2 드림홀  
08:00~17:40 수능시험 시간대에 맞춰



새롭게 보는  
영락교회  
80년사

한국 교회의 가장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이다. 한경직 목사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며,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이승만 정부에서도, 박정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한경직, 이승만 정권 도와 반공투쟁 자유민주주의 무시 땀 결연히 맞서

### 한경직은 친이승만 계열인가?

많은 사람은 한경직 목사는 이승만 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승만 박사와 한경직 목사 모두 반공주의자이며, 우익 진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경직 목사와 이승만 박사의 관계를 연구해 보면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한경직 목사는 자신이 이승만 정권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한경직 목사는 1986년에 출판된 그의 50주년 기념 저서에서 “과거 R(이승만) 정권 때에는 나를 홍사단계 사람으로 오인하고 나를 질시하고, 나를 경계하고 경원하였다. 그러나 처음 세운 나라의 기초가 튼튼해야겠다는 생각에 가능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한경직 목사 성역 50주년』, 1986, 82).



박명수 명예교수  
서울신대  
영락교회80년사 집필자

한경직 목사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안창호가 세운 대한인국민회의 회원으로, 정기적으로 회비(인구세)를 냈다(『신한민보』 1928년 3월 15일, 1939년 3월 28일). 일제 시기 평안도 출신들이 안창호를 존경하여 홍사단에 속해있었고, 이승만 정권은 이런 일로 인해 한경직을 홍사단계열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증언을 따르면 이승만 정권은 한경직 목사를 경계했지만, 오히려 한경직 목사는 신생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승만 정권을 적극적으로 도와 공산주의와 싸웠다. 하지만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할 때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이승만 정권하의 종교의 자유와 한경직 목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공공기관의 기금 강요이다. 이승만 정부 시절 국가나 지방정부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원성이 많아 정부는 1951년 11월 17일 법률 제24호로 기부금품모금금지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규제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54년 8월 내무부를 중심으로 기부금품 모금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1954년 8월 기부금품모금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교부 학원 종교계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문제에 대한 좌담회에서 한경직 목사가 종교계를 대표해 의견을 말했다. [경향신문] 1954년 9월 5일 좌담회 광경

모금 대상에 일반사회 외에도 학원과 종교단체까지 확대하고, 이들이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 내무부의 주관하에 도지사 및 특별시장이 실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일차적으로 문교부가 반대했고, 학원이 강력하게 저항했다. 종교계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교회의 헌금이 국가기관의 통제 아래 진행됨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며, 이 경우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향신문은 9월 초 이 문제에 대한 좌담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종교계를 대표하여 한경직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자유방방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군사 및 경제원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건전한 민주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00건국도상에 있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헌법을 준수하여 행정을 잘 하여야 할 터인데 종교의 자유를 간섭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경찰국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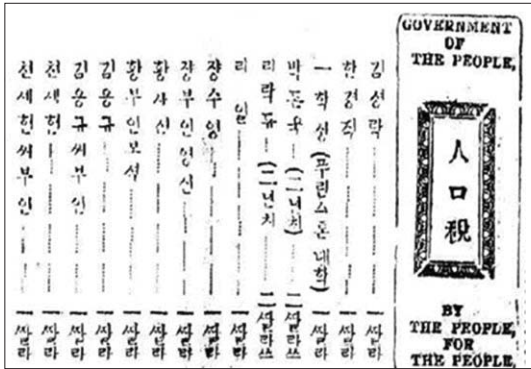
인정하는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현재 공산독재국가와 싸우는 우리가 본의 아닌 독재국가로 흘러가거나 않을까 이렇게 보이므로, 그 국제적인 반향을 생각하여 폐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압니다.

([경향신문] 1954년 9월 5일)

### 1956년 정·부통령 선거 자유당 후보 지지 요청과 한경직 목사

많은 사람은 한국기독교교는 이승만 정권을 적극 지지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기독교협의회(회장 전필순)는 각 교파의 대표로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자유당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함태영을 적극 지지했다. 이것은 기독교와 이승만 정권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56년 제3대 4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상황이 달라졌다. [기독교공보]는 기독교와 정치문제라는 기사에서 “교회는 정치단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교회는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되며, 투



[신한민보] 1929년 3월 28일



[경향신문] 1956년 4월 13일

표는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만든 기독교 동지회는 2대 대통령 선거처럼 이번에도 기독교를 자신들의 정치에 이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4월 11일 기독교지도자 50여 명을 초청하여 [정·부통령선거추진기독교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교회가 정치에 간여하는 것은 부당하니 입후보자 중 어느 개인을 지칭해서 지지 운운 결정하지 말고, 다만 기독교도로서 지지하여야 할 입후보자의 원칙 정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당 인사들은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유당 측 인사를 기독교공천 인사로 강행하려고 했다. 한경직 목사는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해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퇴장하였으며, 회의장 밖에는 청년교도들이 흥분한 상태로 서성거리고 있었다.

([경향신문] 1956년 4월 13일)

하지만 당시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시민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자유가 있다. 하지만 교단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았다.

4·19 직후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향하여 과거 자유당 정권에 아부했고, 이용당하지 않았는가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서 한경직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는 백만이나 된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부하고 또 이용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단위나 기독교단체로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1960년 5월 22일) **만남**

자유당 측의 일방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경직(예수교장로회총회장 겸 기독교연합회장) 씨는

## 지하 1층 영락휴게실 깨끗하고 편리하게 모든 성도의 교제 공간으로

### 운영모토 ‘성령충만한 성도중심 친교공간’으로

50주년기념관 지하 1층 영락휴게실이 약 6개월의 멈춤과 기다림 끝에 새롭고 아름답게 조성되어 9월 21일(주일) 다시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 주일부터 영락의 모든 성도님이 휴게실의 친교 공간을 기쁨과 행복으로 맞이하고, 웃음 가득한 즐거움으로 이용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공간 재구성을 위해 헌신해주신 80주년기념사업회 코이노니아 공간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친교부(부장 양지청 장로)는 먼저, ‘성령 충만한 성도 중심의 친교부’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으로 영락의 성도님들을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는 교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6일(토), 영락기도원에서 열린 상반기 영성수련회[말씀: 김중훈 목사, 주제: ‘섬표’(에스라 8:21~23)]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변화된 환경에



김경석 집사  
종로·성북교구  
친교부 총무



발맞추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휴게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❶ 운영 방침: 성도와 봉사자의 동선 효율성과 안정성 고려
- ❷ 환경 관리: 물품 판매대 및 휴게실 전반을 철저하게 위생 관리
- ❸ 소통 공간: 전 세대가 기쁨으로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 ❹ 세대 맞춤: 간식·음료 등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의 선호도에 맞춘 어울림 공간

마지막으로, 휴게실의 친교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봉사자분께서 기쁨으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참여 부탁드립니다.

- ① 섬김 시간: 주일 06:30~14:30
- ② 섬김 장소: 50주년기념관 지하 1층 영락휴게실
- ③ 섬김 활동: 판매봉사  
(음료·차와 커피 팀, 간식·빵과 떡 팀, 회계·계산팀 등) **만남**

## 미안마로 사랑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운 무료 약국



### 해열제 보내달라... 내 마음 움직인 절절한 문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미안마를 통해 그 사실을 깨달았다. 까만 눈동자 그리고 까만 얼굴에 타나가를 바르고 나타난 그들에게 오랫동안 만나 온 사람들처럼 남모를 정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은 순수와 열정을 말했고, 감사를 아는 훈훈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세상이 단절된 그때는 맘대로 모이지 못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빵을 들고 다니며 선교활동을 하던 중, ‘한국에서 후원하는 약사가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어느 선교사님의 문자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생면부지의 약사님! 여기는 마스크도 없고 해열제가 없어 아이들이 힘없이 픽픽 쓰러져요. 약 한 알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네요” 절절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다. 당장 온누리건강복지회에 전화를 걸어 미안마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마스크와 종합감기

약 10만 캡슐을 받아 배로 실어 미안마에 보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에 내 몸과 마음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들로부터 “후원해준 약을 먹고 생기를 찾았고, 마스크 질이 매우 좋아 잘 쓰고 있다”라는 회답이 왔다. 교단을 초월하여 미안마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나눠 받았다고 한다. 작은 나의 마음이 움직였을 뿐인데, 그 파장은 많은 사람의 기쁨과 감사로 돌아왔다.

### ‘양곤 1호 무료약국’ 기적의 탄생

나의 미약함이 선한 마음을 품게 하는 나라, 미안마! 마스크를 쓰고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우리 약국을 방문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이 검게 그을린 모습의 선교사님은 항상 생글생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다. 지속해서 미안마에 약을 후원해 줄 수 없느냐고 하기에 온누리건강복지회에 문의했다. 온누리건강복지회에서는 유효기간이 3~6개월이 남아 있는 약은 계속 생기기 어려우니 말라고 했다. 내게 다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란 걸 알게 되었다.

확답받고 나서 양곤에 무료 약국을 만들 계획을 세운 후 선교사님이 사역지로 떠났다. 뒤쪽 강에서 쓰레기를 걷어낸 후 소독하고, 집을 노란색으로 멋지게 페인트



문성미 권사  
노원교구  
의료선교부





1 양곤에 세운 무료약국 1호 '누리 무료 건강 센터' 2 만달레이에 설립될 무료약국 2호

칠하여 간판도 달았다. 그렇게 '누리 무료 건강 센터'가 탄생했다. 그곳은 730세대의 빈민촌 사람들이 무료로 약도 받고 복음도 전달받는 장소가 되었다. 매달 30kg의 약을 후원하여, 치아가 손상된 아이에게 칼슘을, 다리 아픈 노인에게 관절 약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작은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양곤 1호 무료 약국'의 기적적인 탄생이다. 내 생각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훈훈한 사랑의 바람을 일으키신 나라, 미얀마이다.

항간의 지인들은 “우리나라도 힘든 곳이 많은데 너는 왜 미얀마만 바라보느냐?”라고 말한다. 나는 미얀마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의 많은 백성을 긍휼히 보신다는 사실만 안다. '우리가 전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날까지 열심히 하련다.

### 동트는 무료 약국 2호… 하나님의 계획 깨달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미얀마를 강타한 큰 지진의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그동안 약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써서 모아놓은 글로 '영동 약사의 촌극'이라는 책을 만들었다(책사진). 책을 팔아서 그 수입금으로 미얀마를 후원하여 만달레이 지역에 '무료 약국 2호'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 미얀마에서 28개의 교회를 돌며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께 연락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전했다. 만달레이 지역에서는 간호 공부를 마친 원주민 목사님이 '집에서 아픈 사람들을 조금씩 돌보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며 당뇨, 고지혈 등을 측정하고 식이요법을 말해줄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뜻이 일치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셨다.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육신의 치료를 넘어서,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수입금과 후원금을 모아 미얀마 만달레이에 보냈고, '무료 약국 2호'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만남**

## '복음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2025 선교대회 마쳐



### 다양한 선교 세미나와 풍성한 축제의 현장

2025 선교대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10일(금)부터 18일(토)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10일 저녁 베다니홀에서 문화선교축제로 문을 연 이번 선교대회는 12일 선교주일 예배와 학원선교대회를 비롯해 영락교회가 운영 중인 3개 학교법인 소속 8개 학교의 목사님과 교장, 교사와 학생이 함께했다. 이어 15일(수)부터 17일(금) 저녁에는 선교부흥회가 열려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했다.

세미나 일정도 풍성했다.

- 15일에는 전국의 22개 농어촌 선교사가 참석한 **농어촌 선교세미나**
- 16일에는 33명의 군 선교사와 군목 등이 말씀을 전한 **군 선교세미나**
- 17일에는 우리 교회 선교사 17명이 참여한 **해외 선교세미나**
- 18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학생과 외국인 선교사 60여 명이 참석한 **유학생 선교 세미나**가 각각 열렸다.

이 외에도 130여 명의 선교사가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비전을 나누었다. 선교대회 직후인 22일(수)과 24일(금)에는 베다니광장과 봉사관 앞마당에서 선교 바자가 열려 선교대회의 열기를 이어갔다. 2025년 선교대회는 선교 80주년의 열정을 불태우며, 우리 교회 파송·협동 선교사와 성도 간 만남을 통해 더욱더 풍성한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 선교적 비전과 사명을 알리다

12일(주일),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 80주년 기념 선교주일을 지키며, 선교적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운성 담임목사는 '그들도 찬송할 수 있도록'(요한복음 1:19~28) 제목의 말씀을 전했으며, 베다니광장에는 영락대 광·보성학원의 기독교 학교 교육사역을 알리는 홍보부스가 마련되어, 학원선교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선교사님 18명이 각 교구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 선교지 현황을 전하고, 중보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선교의 교제를 이어갔다.

한편, 오후 찬양예배는 학원선교대회로 드러졌다. 영락교회가 운영하는 3개 학교법인 8개 학교(영락학원(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교), 대광학원(대광초·중·고), 보성학원(보



성여중·고))의 기독교 교사와 학생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원선교대회에서는 대광고 교목 우수호 목사가 '하나님의 선물!'(마태복음 28:18~20)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기독교 학교에 속한 교사와 학생들을 축복했다. 이어진 간증과 학원 선교보고를 통해 기독교 학교 교육 현장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했다.

###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2025 선교대회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선교부흥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성도의 선교적 사명을 고취하는 자리였으며, 국내외 선교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

창립 80주년, 그리고 태국 선교사 파송 선교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이한 가운데, 이번 3일간의 말씀 집회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 현장에서 실천해 온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주었다.

집회에서 전해진 말씀은 다음과 같다.

- 15일(수) 오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로마서 9:31~37) - 김동익 러시아 선교사
- 15일 저녁: '주님께서 하신다'(출애굽기 14:13~21) - 강병화 부룬디 선교사
- 16일 저녁: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로마서 14:17~18) - 김주신 동북아 선교사
- 17일 저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마태복음 20:1~16) - 황관중 M국 선교사

선교사들은 말씀을 통해, 글로벌 선교사역의 비전을 성도의 본분과 연결 지어 전했다. 특히 성도의 진정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있음을 강조하며,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번 부흥회는 예년보다 많은 성도가 집회에 참여하며, 해외선교의 증인인 선교사들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만남**

선교부



## 기독교 학교는 '하나님의 선물'

### 교육은 가치를 심는 일... 기독교사학 필요한 이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8~20)

기독교 학교는 다음세대 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18~20절 말씀은 예수님의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 곧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8~20) 이 명령은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예수님의 권세 위에서 내려진 명령, 곧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영적 통치)와 땅

의 모든 권세(현실적 영향력)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예수님은 단지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인, 가정과 사회, 교육과 문화 속에서도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수호 목사  
대광고 교육

### 성경적 가치로 세상 바꿀 인재 길러내야

교육은 가치를 심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생명' '공동체' '사랑'의 가치입니다. 올바른 성경의 가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길러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와 이 사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락교회가 속한 통합교단은 학교를 가장 많이 소유한 교단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장로교 교인들이 정착하는 곳마다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 학교를 세웠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합과 합동 교단이 나누어질 때도 대부분의 학교를 통합교단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적 소유가 아니라, 다음세대 선교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하나님께서 다음세대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한국 교회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며, 하나님 말씀 속의 가치를 품은 미래의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갈 기독교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만남**





## "믿습니다! 아멘"... 훈련병 930여 명 진중세례

### 선교부, 논산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식

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는 지난 9월 27일(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영내에 있는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식을 거행했다. 930여 명의 훈련병이 세례받은 이번 진중세례에는 김운성 담임목사를 비롯한 10명의 목사가 집례 위원으로 참석했고, 본 교회에서는 은퇴 및 시무장로 34명을 비롯해 여전도회와 남선교회, 안수집사회 회원 및 선교부 임원 등 총 156명의 성도가 참여했다.

서상현 선교부장의 기도와 고은수 2여전도회 회장의 성경 봉독, 여전도연합찬양대의 '빛의 사자들이여'란 제목의 찬양에 이어서 총회 군선교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운성 담임목사님이 '왕이 된 목동'(사무엘상 16:13) 제목의 설교를 통해 참석한 장병들에게 축복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김순미 장로의 축사가 있었다.

### 매년 5만여 병사들 예수님 영접

한국전쟁 중이었던 지난 1952년 천막 교회로 출발한 연무대 군인교회는 1974년에 건축된 현대식 예배당을 거쳐 2018년 5천여 명 수용 규모의 현재 예배당을 헌당했다.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열리는 진중세례를 통해 매년 5만여 명의 장병이 세례받고 있다. 연무대 군인교회의 진중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육군훈련소에 입대해 어려움과 낯섦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또한 청년 장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미래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가길 소망하며, 이러한 청년 선교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영락교회의 선교사역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도한다. **만남**

선교부

## 영락에서 드리는 열방의 예배 "모든 나라로 찬양케 하라"



영락 안에서는 매주 선교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섯 개 나라 유학생들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먼 선교지에서 만 경험할 수 있는 열방의 예배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셈입니다.

### 유학생 선교부를 섬기며

여섯 나라(네팔, 러시아, 미얀마, 베트남, 몽골,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저마다 고유한 특징과 분위기를 지니고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의 청년으로서, 문화와 신앙의 바탕에는 한국 청년들과 비슷한 코드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학생 성도 가운데는 나름대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학생 청년 성도들은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도, 약화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신앙 성장의 어려움 속 유학생 청년들의 삶

유학생 청년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학업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물론,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며, 타지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과 더불어 인간관계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도 안고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지만, 환경적인 어려움과 함께,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일조차 힘든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떠한 영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 유학생 성도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이들의 영적 필요와 채움, 삶의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유학생 성도들이 한국 땅에 머무는 동안 과연 무엇을 얻어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보내게 될까?' 숙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에 대



김영석 전도사  
선교부 유학생선교 담당  
중국어예배



한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유학생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신앙 광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이들에게 '능동적' 신앙을 경험할 참여의 기회를 주고, 타국 땅에서 자기 민족과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이들의 삶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 제1회 영락 외국인 찬양제를 마치며

이러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영락 외국인 찬양제'였습니다. 이번 찬양제의 주제는 '모든 나라로 찬양케 하라! Let Every Nation Praise!'로, 찬양제 준비를 위해 7월부터 나라별로 모여 연습하고 기도했습니다. 9월 21일(주일) 저녁 7시 드림홀에는 여섯 나라의 유학생 202여 명이 참여하여, 애초 예상 인원보다 100여 명이 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시간을 얼마나 갈급해하며 갈망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모든 나라가 하나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국제적인 찬양 모임에 참여



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꼈다' '열방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다' 등의 피드백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유학생이나 친구들도 많이 참여함으로써 복음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의 현상이었습니다. 이 찬양제를 허락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며, 수고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Every nation will come to the Lord!" **만남**



## 부룬디로 부르신 주님의 뜻 아픔 공감하는 치유자 되겠습니다



### 아멘! 주님의 명령에 순종

아마호리(키룬디어로 '살롬'의 의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부룬디로 단기 의료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5박 8일, 짧은 일정이었지만 저의 신앙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5월 25일은 의료선교부 의료인 등록 주일이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다가 이날 의료인 등록을 했습니다. 이때 차장 집사님으로부터 부룬디 의료선교 참가를 권유받았습니다. 개원의라는 핑계와 추석 명절이 포함된 황금연휴에 쉬고 싶다는 유혹, 무엇보다도 아프리카라는 척박한 의료 환경에 대한 막막함에 섣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주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김영균 집사  
고양·파주교구  
의료선교부

‘아멘!’으로 아내와 함께 이번 부룬디로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 어둠을 뚫고 온 간절함... “고마워요”

강병화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무양게 크리스천센터 내에 있는 보건소는 청결은 고사하고 전기와 물 공급조차 제한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잦은 정전과 다음 날 진료에 필요한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부담으로, 우리는 랜턴 불빛에 의지한 채 밤늦도록 약 포장과 진료실 준비를 했습니다.

진료 첫날 새벽 3~4시부터 환자들은 보건소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7시간의 시차로 일찍 깬 우리는 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진료 마지막 날은 오전 11시 30분경까지는 모든 진료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새벽부터 어둠을 뚫고 먼 곳에서 달려온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진료는 오후 3시 30분이 되어서야 보건소 뜰 안에 들어온 환자를 모두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열악했지만, 23명의 팀원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4일간 1,504명을 대상으로 진료했으며, 다섯 건의 수술과 시술, 그리고 기도사역과 문화사역으로 만났습니다. 오직 주님





의 은혜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첫날의 진료를 마무리하고 짐을 챙겨 숙소로 내려오는 길에서 만난 어린 여자아이의 “Thank you”라는 인사는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눈에 쏟아진 눈물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마음이 아닌, 그들의 순수함과 감사를 통해 제가 더 많은 것을 받았으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낀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의료선교를 통해 의료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진실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예배의 회복, 치유자로서의 새로운 다짐

사역 둘째 날, 현지인 주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축제와 같은 분위기의 예배가 낯설었지만,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온몸과 마음을 다해 춤과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번 부룬디 해외의료선교는 저에게 선교를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해 봅니다. 단순히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공감

으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치유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룬디에서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곳에서 만난 순수한 눈빛들을 잊지 않고, 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채철우 목사님을 포함한 23명의 단원이 부룬디에 뿌린 눈물의 기도와 헌신은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번 사역을 위해 현지에서 준비해주시고, 사역 동안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신 강병화 선교사님과 동역자분들, 현지 YWAM 봉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영락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YWAM 봉사자가 보낸 문자를 번역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섬겨주신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타적인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남**

## 주여! 탄자니아를 축복하소서 (Mungu, ibariki Tanzania)



### 선교의 준비와 부르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

제2남선교회(회장 이민하 안수집사)는 영락교회 80주년을 맞이하여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마음에 품고 2025년 3월에 해외선교를 위한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자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이시며 그 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37명의 팀원이 함께 D-153일 릴레이 중보기도, 스와힐리어 인사말과 복음 전도 표현, 찬양과 율동을 익혔습니다. 10주간의 훈련 준비 과정은 탄자니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탄자니아 땅에 하나님의 꿈을 심다

해외선교팀은 그렇게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마음에 품고 믿음



정재훈 안수집사  
용인·화성교구  
제2남선교회 수석부회장

의 씨앗을 심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7박 10일의 긴 해외선교 여정은 6월에 파송 받은 김하영 선교사의 파송지인 미람베교회 개척(재건)을 목표로 예배와 전도사역을 통해 미람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기도했습니다. 제2남선교회 회장 이민하 안수집사와 박용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37명의 단원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 교회의 문턱을 낮춰 주변의 모든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쉽게 교회의 뜻을 밟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오는 기쁨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탄자니아 미람베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 섬김과 나눔 사역을 통해 영으로 소통하다

해외선교팀은 어린이 사역, 거리 전도, 지역 미화, 가정 심방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복 입고 경복궁 사진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풍선, 비눗방울, 판박이, 찬양과 율동, 복음 팔찌 등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사역을 통해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맑은 눈을 보며 몇 단어만으로도 하나님









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유아를 안고 온 젊은 엄마들을 위한 네일아트,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밥과 떡볶이를 만드는 K푸드 시간에는 피부색만 다를 뿐 모두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 됨을 느꼈습니다.

김하영 선교사를 통해 추천받은 미캄베교회의 열한 가정을 직접 방문했을 때는 불고기와 잡채 등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고 찬양하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을 위해 스와힐리어로 준비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복음을 제시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역사가 있었으며, 방문한 모든 가정마다 기쁨으로 맞아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탄자니아 해외선교에서 새롭게 함께한 의료선교는 기도했던 팀원들의 건강 뿐 아니라 무슬림 현지인들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을 치료하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 예배와 학교사역을 통해 복음의 기쁨을 나누다

미캄베교회의 예배 시간은 오전 9시였으나, 많은 성도가 일찍부터 모여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세 시간 동안 이어진 찬양은 온 마을로 흘러넘쳐, 인근 이슬람 가정의 어린이들까지 교회로 찾아와 함께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오후 5시까지 마을 잔치로 이어져, 500여 명의 주민과 음식을 나누며, 찬양, 춤을 통해 모두가 천국 백성임을



##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다

**간증 ①** 아홉 가정을 방문해 불고기, 잡채 등을 직접 요리하며 식탁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가정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맞이했고,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또 다른 가정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맘보(Mambo, 안녕)” “카리브(Karibu, 환영합니다)”라 인사하며 반겨주었고, 우리도 “맘보 싸와 싸와(Mambo Sawa Sawa, 모든 일이 괜찮다)”를 함께 노래하며 복음 팔찌를 나누었습니다.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여성의 연락처를 선교사님께 전하며 기쁨을 나눈 순간, ‘이것이 진정한 노방전도의 기쁨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광래 안수집사 / 마포·영등포교구)

**간증 ③** 153일간의 기도 끝에 도착한 탄자니아에서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식탁교제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교통하심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됨의 기쁨을 누리며 탄자니아 땅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경선 성도 / 마포·영등포교구)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향기팀’의 위십 공연을 통해 김하영 선교사의 선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와 유치원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는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과의 만남이었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

**간증 ②** 단기 선교라는 이름 아래, 무의식중에 ‘우리가 더 가진 자로서 돕는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미람베교회 성도들은 2개월 동안 한국어 찬양 ‘충만’을 배우며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무명이라도, 가난해도, 고난이 있어도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할 때, 오히려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누가 누구를 돕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사랑을 나누는 일임을 깊이 배웠습니다.

(정재훈 안수집사 / 용인·화성교구)

**간증 ④** 탄자니아 땅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만들어 서로 먹여주며 하나 되는 시간을 통해,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과 청년들의 찬양을 들을 때에는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미람베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하길 소망했습니다.

(황현숙 권사 / 서대문·은평교구)

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탄자니아 땅 위에 주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탄자니아를 축복하소서! 주의 영광이 그 땅 위에 충만케 하소서!” **만남**

## 고요 속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

### 고요와 멈춤: 낯선 시간 속에서 얻은 선물

살롱! 날씨와 계절이 변하듯 급격히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께 변하지 않는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터전 영락수련원(남한산성), 그곳 본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방문하신 분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고요 속에 주님을 만나는 영락수련원입니다’ 분주함과 소란스러움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어쩌면 이 문구는 정말 낯설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달려야 한다는 2030 세대를 보내는 저에게도 고요와 침묵은 낯선 단어였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잠시 멈춰 설 여유도 없이 바쁘게 달려오던 저에게 예상치 못한 멈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년 전 겨울, 하나님께서 많이 보고 싶으셨던 것인지 사랑하는 제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갑작스레 다가온 상실감과 무력함에 빠진 저는 그동

안 달리던 모든 시간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멈춤의 시간을 좌절과 낙심으로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고, 감사하게도 고요 속에 주님을 만나며 그동안 걸어왔던 여정을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 영락수련원: 다시 경험한 멈춤과 소명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원에서 2~3학년을 열심히 달리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요와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에서는 졸업을 앞둔 3학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목회 비전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소명과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3일간의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영성을 함양하고 결단을 내리는 이 과정을 지나며, 저의 목회 비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성과 공동체 목회’ 과정을 선택했고, 남한산성의 영락수련원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록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자연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조수찬 전도사  
노원교구  
영락수련원, 새가족부

께서 이 시간을 단순한 쉼과 회복의 기회로만 선물해주신 것이 아니라 졸업을 앞둔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셨고,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며,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모습도 어렵듯이나마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사역지에서의 초청: 본질 회복하는 고요의 시간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발판 삼아 신대원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을 앞둔 제게 귀한 발판의 시간을 주셨던 장소, 고요 속에 주님을 만나는 영락수련원에 다시 초청해주셨습니다. 수련원사역은 물론, '교구'와 '새가족부'라는 귀한 사역도 맡겨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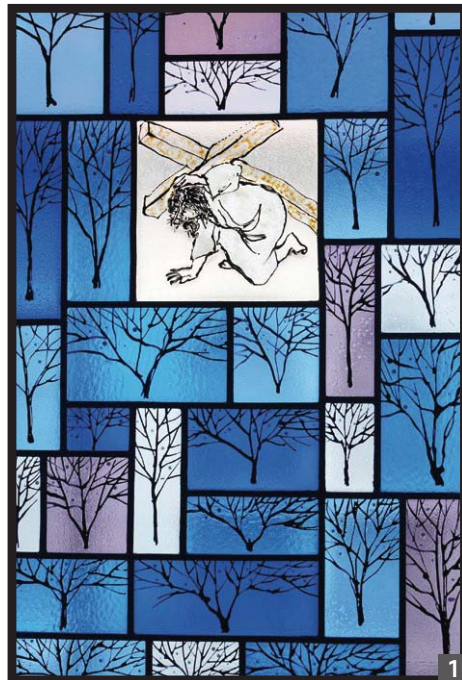
교구와 부서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하다 보면, 고요 속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쳤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합리화하며 본질은 잊어버린 채 일만 하는 기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연약한 저를 불러 주십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고요의 시간에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를 불러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 증인의 약속: 고요 속에서 얻는 힘과 소망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증인이 되어라'가 아닌 "증인이 될 것이다"(새 한글성경)라고 명령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에게도 항상 함께하시며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잠시 가지는 고요의 시간, 그 속에서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머무는 그 시간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자 다시금 달려 나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며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분주한 11월, 고요 속에 주님을 만나는 잠시의 여유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 영락, ‘성령의 색’으로 채워지다

- 본당 스테인드글라스 설치를 마치며

지난 3월부터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6개월에 걸친 작업을 마치고, 2025년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본당 20개 창문에 있는 기존의 비닐 시트지를 제거한 후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고딕양식으로 손꼽히는 우리 교회의 본당 건물은 1975년과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스테인드글라스를 창문 대부분에 설치했지만, 재정 부족으로 일부 창문은 시트지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무렵부터 교회의 일부 창문의 시트지가 낡아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드리기 시작했는데, 6년이 지난 올해에 한 경직목사기념사업회의 적극적인 응원으로 이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9월 23일 예장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기 전에 새롭게 단장하게 되어, 하나님의 계획에 놀랄 따름입니다.

### 작품을 향한 준비와 묵상의 시간

저는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지만 2012년부터 하나님의 빛을 잘 전달하여 보여주는 유리에 관심을 두고 대학원에서 유리조형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최진희 권사  
서초교구



아침에 작업실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며 창문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던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작품 주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깎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시편 108:1-2)

#### 창문에 담긴 신앙 공동체의 의미

이번에 설치한 스테인드글라스 대부분은 교회 건물의 동쪽 부분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의 묵상(기도)'을 주제로 작업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른 작은 각각의 유리에 한 사람의 성도를 의미하는 나무를 그려 넣었고, 기도의 소리는 하얀 점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 성도가 모여 이루는 믿음과 기도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보고자 조각 유리의 집합체인 스테인드글라스로 표현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 모여 하나의 큰 보자기를 이루는 조각보처럼, 나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 보이기를 소망하며 작업했습니다.

#### 각 출입구 창문의 메시지

본당의 십자가 모양으로 증축된 부분의 양쪽 출입구 위의 반원 창문(남문1, 북문1)은 시편 1편의 말씀 중,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영락교회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하며, 기존의 스테인드글라스와도 어울리도록 자유로운 곡선으로 시냇가와 나무를 표현했습니다.(사진2)

서쪽의 2층 계단 출입구(남문4)의 창문은 나무로 표현된 아침 묵상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다가 지쳐 쓰러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단에 배치하여 표현했습니다. 이 창문은 2층 출입구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면 위쪽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시선이 닿는 곳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손수 메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처럼 대신 지고 갈 수는 없을까요? 언제나 제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사진1)

제작과 설치 계획부터 응원해주시고 작업실에 방문하셔서 기도해주신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정준희 목사님, 차영균 장로님, 전정미 간사님과 직원 여러분, 설치를 지원해주신 행정처, 그리고 제작을 후원해준 가족과 마지막 퍼티 작업을 기꺼이 헌신적으로 도와준 도움의 손길들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만남**

## 예장 통합 제110회 총회, 영락교회에서 개최



사진제공 | 한국장로신문



사진제공 | 한국기독교공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10회 총회가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69개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총대 589명과 장로총대 585명, 총 1,174명이 참석해 총회 임원 선출과 교단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첫날에 이어 태극기와 총회기를 든 109회기 총회 임원들이 증경총회장 및 부회장, 노회장들과 입장했다. 개회 예배는 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총회 서기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낭독하고, 장로부총회장이 기도를, 회의록 서기가 성경 봉독을 맡았다. 이어 영락교회 찬양대의 찬양 후, 부총회장 정훈 목사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성찬 예식은 총회장의 집례로 이어졌고, 봉헌기도, 봉헌





위) 간식 접대를 담당한 여전도회원 아래) 안내를 담당한 권사회원

특송, 축도, 총회가 제창, 내외빈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환영 인사에서 김운성 담임목사는 “예배당은 비록 오래되고 협소하지만 6.25 직전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던 자리이며, 트루먼 대통령의 명을 맡은 델러스 고문이 은혜받고 유엔군 파병을 이끌었던 역사적 현장”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봉헌된 헌금은 목회자유가족협회, 노숙인선교회, 다문화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이번 회기 총회 임원으로는 정훈 목사가 총회장, 권위영 목사가 목사부총회장, 전학수 장로가 장로부총회장에 단일 후보

로 출마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여성 총대 할당제 법제화(부결)와 연금 규정 개정안(가결) 등이 논의됐다.

우리 교회에서 23년 만에 다시 열린 제110회 총회는 김순미 장로가 총회준비위원장을 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라며, 총회 전부터 기도와 협력을 부탁한 바 있다. 3일간 여전도회와 권사회가 안내, 간식준비 등 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정성껏 섬겼고, 그 결과 이번 총회는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으며, 참석한 총대, 초청 인사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서울노회 제208회 정기노회, 우리 교회 전도사 7명 목사 임직



지난 10월 23일(목) 우리 교회에서 열린 서울노회 제208회 정기노회(노회장 이언구 목사)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 7명이 목사 임직을 받았다. 목사 안수식은 노회장 이언구 목사 집례로 안수자 소개에 이어 서약, 안수기도, 선포 후 안수증과 임직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하단: 임직자 명단)**

김지용(고양·파주교구, 사회봉사부, 청년회, 예배찬양팀-수요)  
최예녹(강동·송파교구, 목양부)      장대성(대학부)  
변성국(국제예배부)      권희주(유아부)

박소망(관악·동작·파주교구, 평생대, 예배찬양팀-4부)  
김진재(강북·도봉교구, 대학부, 예배찬양팀-금요)



### 이희관 은퇴장로 백수(白壽)에 별세… 교회장 엄수

이희관 은퇴장로가 지난 10월 16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99세. 1926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9년부터 초등부 교사와 구역장으로 봉사하며 30년간 섬겼다. 이외에도 관리부, 전도부 서기, 평신도부 부감 및 부장, 서무부·재정부 차장, 모자원, 경로원, 보란원 운영위원, 대학부 교사 등 다양한 직분으로 헌신했다.

1979년 집사 안수를 받고, 1987년 12월 제20회 시무장로로 장립된 후에는 청년부 부장, 갈보리찬양대 대장, 당회 인사위원회 서기, 유년부 부장교사로 섬기며 교회학교 교사 3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 5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 관리부 부장, 시온찬양대 대장, 음악부 부장, 영락기도원 운영위원, (재)영락공원묘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1996년 12월까지 시무장로로 교회공동체를 섬겼다.

고인의 장례예식은 교회장으로 10월 20일(월) 오전 8시 분당에서 김운성 담임목사 집례로 드려졌다. 이어 장자인 영락공원묘원에서 남정열 목사의 집례로 하관예식이 거행되었다. 유족으로는 박승금 은퇴권사와 1남 1녀를 두었고, 안타깝게도 10월 30일 은퇴장로회 백수잔치를 앞두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 영락시어터 11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 워룸 (War Room, 2015) 12 120분

2일

감독: 알렉스 칸드릭 출연: 벤 데이비스, 메그 크로스비, T.C.스탈링스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부동산 중개업자 엘리자베스는 새로운 고객 클라라 부인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적에게 맞서는 법과 함께 "기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특별한 조언을 받게 된다. 용서와 치유, 사랑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힘!



## 굿윌헌팅 (Good Will Hunting, 1997) 15 126분

9일

감독: 구스 반 산트 출연: 맷 데이먼, 로빈 윌리엄스, 벤 애플렉, 스티븐 스카스가드

수학, 법학, 역사학 등 모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월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해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불우한 반항아다. 절친인 처키와 어울리던 월의 재능을 알아본 MIT 수학과 램보 교수는 대학 동기인 심리학 교수 손에게 그를 부탁하게 되고, 거칠기만 하던 월은 손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상처를 위로받으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 바베트의 만찬 (Babette's Feast, 1987) ALL 102분

16일

감독: 가브리엘 액셀 출연: 스테판 오드랑, 보딜 크예르, 브리기에 페더슈필, 잘 쿨르

덴마크의 바닷가 작은 마을에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두 자매 마티나와 필리파. 젊은 날의 사랑과 추억을 모두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살고 있던 어느 날, 필리파의 연인이었던 파판의 편지를 품에 안은 바베트라는 여자가 나타난다.



## 레미제라블 (Les Misérables, 2012) 12 (상)75분 / (하)83분

23, 30일

감독: 톰 후퍼 출연: 휴 잭맨, 러셀 크로우, 아만다 사이프리트, 앤 해서웨이, 헬레나 본햄 카터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우연히 만난 신부의 손길 아래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결심한다. 정체를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던 장발장은 운명의 여인, 판틴과 마주치고, 죽음을 눈앞에 둔 판틴은 자신의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한다. 그러나 코제트를 만나기도 전에 경감 자베르는 장발장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리고, 다시 체포된 장발장은 코제트를 찾아 탈출한다.

## 추수의 계절 황금빛 밀밭 농부처럼 우리 삶에도 풍성한 결실 가득하길...



### 추수하는 사람들 The Harvesters

1565년 제작

피터르 브뤼헬(Pieter Bruegel the Elder)

16세기 플랑드르의 화가 피터르 브뤼헬(Pieter Bruegel the Elder, 1525~1569)은 유럽 미술사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가장 따뜻하게 그려낸 화가로 기억됩니다.

그는 귀족이나 성인(聖人)이 아닌, 평범한 농민들의 일상 속에서 노동의 존엄과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그의 작품인 추수하는 사람들(The Harvesters)은 추수의 계절에 들판에서 일하고 잠시 쉬어 가는 농부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황금빛 밀밭과 평온한 하늘, 멀리 이어지는 마을과 산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풍요와 질서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자연의 풍요와 질서 가운데 성실히 일하고, 또 잠시 쉬며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 장면은 '사람이 수고하는 가운데 먹는 것보다 더 나은 복이 없다'(전도서 2:24)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추수의 계절 11월, 하나님의 섭리와 풍성한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도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만남**

2025년 11월호 통권 619호

발행 2025. 11.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조지형 소남호 이신일 김가선 박선이 정용성

기자 김경옥/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김대준 김영란 김천경 승윤영 이나영 지예원

사진기자 박흥기 원종석 유승헌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김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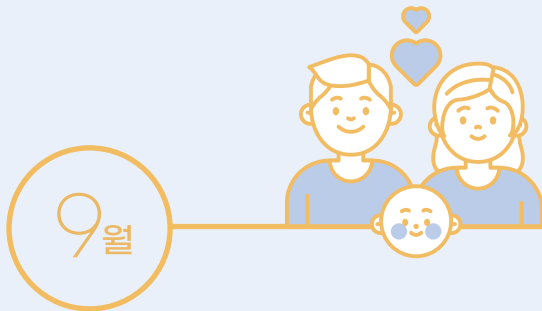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 새아기

- 1 김에이든(김다니엘, 차혜경 가정)
- 2 전설(전상현, 방지희 가정)
- 3 정택현(정세호, 이혜주 가정)
- 4 배하울, 배하진(배민욱, 강효심 가정)
- 5 이음(이석주, 김선교 가정)







## 추수하는 사람들 (The Harvesters, 1565)

피터르 브뤼헬(Pieter Bruegel the Elder)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